

PLAY EBS + 생각의 트리거 1주차

목차

웬만하면 평가원 및 리트 지문 학습 후에 EBS 활용 하세요.

- 1. [1~6] 2022학년도 수능_헤겔의 변증법 2p
- 2. [7~9] 2009리트_헤겔 미학 12p
- 3. EBS 독서 - 뇌 과학과 법 22p
- 4. EBS 현대 소설 - 메밀꽃 필 무렵 30p

윤지환 지음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수능 [4~9]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3.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4.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5.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가) - 1문단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 ‘변증법’의 ()¹⁾가 나왔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해야 해요. ‘정립’, ‘반정립’, ‘종합’의 ()²⁾를 살리는 거죠. ‘정립과 반정립은 반대구나~’ 정도는 하고 가야한다는 거!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 헤겔이라는 ()³⁾이 나왔고, 우리는 ()⁴⁾을 체크해야 합니다. ‘헤겔’이 변증법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한 번 봅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 변증법의 제대로 된 정의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읽고 이미지화를 했어요. 아래와 같이!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사고 과정 : 여기서 세 범주는 ‘정립-반정립-종합’이겠네. 이게 대등한 위상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네?

이미지화 : 정립-반정립-종합 (X)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사고 과정 : 대립적인 두 범주는 ()⁵⁾과 ()⁶⁾일 거고, 이 두 개가 수렴하면서 상향하구나! 그게()⁷⁾이 되겠네.

이미지화 : 정립 vs 반정립 (O)

□ 엄청 길어보이지만, 현장에서는 2~3초 안에 이루어지는 사고과정입니다. ‘변증법’의 세 요소를 끌어오고, 문장에 존재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 변증법에 대한 정의가 나온 이후에, 헤겔이 생각하는 변증법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정의’를 던져주는 건, 그 뒤에 나올 본격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초석일 뿐입니다. 글을 읽기 위해 ‘단기 배경지식’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1) 정의
2) 어휘의 의미
3) 인물
4) 주장
5) 정립
6) 반/정립
7) 종합

□ 어쨌든 문장을 정확히 독해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엔 두 가지 정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보가 몇 개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 하는 것을 스킬 같은 걸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냥 문장을 정확히 읽자는 겁니다.

헤겔의 변증법⁸⁾

- 1. 논증의 방식
2.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 ‘즉’과 함께 ()⁹⁾이 나옵니다. 앞에 나온 두 정보를 엮어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 현장에서 이러한 이해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일단 ‘두 가지 정보가 나왔다’는 사실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 시도 → 안 되면 정보 처리, 되면 이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 우선 정의부터 체크해봅시다. ‘이념’이 ‘수식된 정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이념’이래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근원적 질서’가 보이면 ‘이념’, ‘이념’이 보이면 ‘근원적 질서’로 독해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등장한 논리를 정리해봅시다. 앞 문장에 등장한 ‘헤겔의 변증법’ 두 가지를 대응시켜야 하니까요.

- 1. 이념의 내적 구조^① 및 이념이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②이 변증법적이다. 헤겔의 변증법 (1 / 2)¹⁰⁾
2. 이 두 차원^{①+②}의 논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이다. 헤겔의 변증법 (1 / 2)¹¹⁾

□ 그럼 이제, 여기서 ‘논증 대상 자체’는 무엇일까요?¹²⁾

□ 이제, 위 1번의 ①과 ②에 대해 설명해봅시다.

- ① 이념의 ‘내적’ 구조 : 이는 ‘이념’이라는 대상이 ‘내적’으로, 즉 그 자체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②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 이는 이념이 ()¹³⁾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법적 서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적’·‘외적’을 말이죠. 어쨌든, 이념이 ‘내적’, ‘외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한 거니까 ‘이념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8) 1. 논증의 방식 / 2.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9) 재진술
10) ‘논증 대상’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존재하는 방식’이 ‘변증법’적이라는 것이므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의 재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 철학적 ‘논증’의 방식을 말하고 있으니,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기 보다는, ‘논증의 방식’의 재진술로 생각해야 합니다.
12) 이념 | 이념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니깐요!
13) 외적

2문단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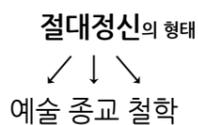
□ 1문단을 엄청 길게 다루었는데, 현장에서 1문단까지 읽고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하는 정보는 딱 두 가지입니다.

- 1. 헤겔은 변증법을 주장했고, 변증법은 <정립-반정립 → 종합>이다.
- 2. 헤겔은 세상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을 '변증법' 하에서 다룬다.

□ 이 두 정보를 2문단과 엮어야 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헤겔은 '미학'도 변증법의 범주에 추가됐습니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 헤겔이 '미학 = 예술'을 ()14)합니다. 사실 미학 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개념도 정의해줍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아래와 같이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정보의 층위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저 셋 다 '절대정신'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⑥ 가리킨다.

□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특! 하고 던져주고 나서,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뒤에 '정의'를 해줍니다. '변증법'과 관련된 정보니까 중요한 정의겠죠?

□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는 것이라 합니다. 1문단에서 '이념' 보이면 뭐 하자고 했죠?15)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 '예종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옵니다.

공통점 : 내용(=)16)

차이점 : 형식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 앞에서 '형식'의 차이가 있다고 한 후에, '형식'을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대응시켜야 합니다.



□ 아주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해요. 완벽히 똑같이가 아니라, 저런 느낌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정보가 나뉘고 있고,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은 저 정보들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들이 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예술'이 나오면 ()17)을 떠올리고, '종교'가 나오면 ()18)을 떠올리고, '철학'이 나오면 ()19)를 떠올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정의와 개념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 직관·표상·사유 즉, ()20)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동시에 '납득'해야겠죠? 한 번 살펴봅시다.

- 직관(= 예술) : 직관이고, 예술이니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겠죠?
- 표상(= 종교) : 표상이고 종교니까 '물질적 대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심상'에 주목하는 거겠죠?
- 사유(= 철학) : 사유하고 철학하는 거니까 '논리적 지성'이겠죠?

□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그대로 엮어서 이해할 수 있네요. 저도 현장에서 저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 같은 말입니다. '세 형태'는 ()21)이고, 이는 '직관'하고 '표상'하고 '사유'하는 겁니다. 세 ()22)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14) 정의
 15) 근원적 질서!
 16) 이념 |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니까요! 인식하는 대상이 '이념'이니까 '내용'이 '이념'이 되는 겁니다.

17) 직관
 18) 표상
 19) 사유
 20) 절대정신의 세 형식
 21) 예술·종교·철학
 22)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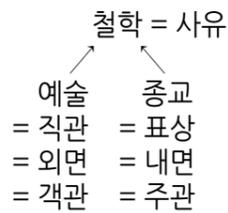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 이 문장이 엄청엄청 중요하게 읽혀야 합니다. 왜??? ()²³⁾이 등장했으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세 개념'으로 나왔던 '예술·종교·철학'이 '변증법'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정말 중요하게 읽혀야 하는 겁니다.

□ 물론, 독해 센스가 있고, 개념을 잘 유기적으로 엮어가며 독해하는 학생이라면 개념이 '3개'가 나온 순간 '변증법'을 떠올렸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문장에 '종합'을 보고 '변증법'을 떠올리면 충분하다는 거죠.

□ 이제 문장을 이해해봅시다. 아래와 같은 대응 관계가 그려져야 해요.

이미지화 :



□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서술이니까요.

예술 : '예술'은 '밖'에서 '보이는' 거니까, '외면적'이고 '직관적'인 겁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구요.

종교 : '종교'는 '내면'의 심상이고 떠올리는 거니까 '표상'이고 '내면적'인 겁니다. 동시에 바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올리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거구요.

□ 어차피 외워야 하는 정보라면, 5초 정도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기 기억 자체에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3문단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거 때문에 '내용'을 인식하는 수준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용'은 뭘까요?²⁴⁾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절대적 진리'는 ()²⁵⁾입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정말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곧 절대정신의 형태 중 하나인 것이니까요!! 그것!²⁶⁾

□ 즉, 이를 통해 우리는 '헤겔'이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거구요. '철학'이 제일 좋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 <예술 = 직관>, <종교 = 표상>, <철학 = 사유>는 앞에서 재진술했던 내용이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 형태 간에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는 말이고, 다른 건 몰라도 '철학'이 제일 높은 등급의 단계라는 점은 체크가 돼야 해요.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 '즉'이라고 나왔으니까, 앞 문장의 ()²⁷⁾을 재진술한 거죠? '예술'에서 '종교'를 지나, '철학'까지 갈수록 등급이 높아지네요! 여기서 등장한 이 세 정보에 ()²⁸⁾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겠네요.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결국 '헤겔'이 하고 싶은 말은, '철학'이 짱이라는 겁니다.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하는 것, 즉, 예술이 높은 지위를 가졌을 때는 인류의 '지성 = ()²⁹⁾'이 미발달된 과거 뿐이라는 거죠.

23) 종합

24) 이념이죠? 절대정신이 인식하는 게 이념이니까요.
25) 이념
26) 철학
27) 단계적 등급
28) 방향성
29) 철학

(나) - 1문단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 (가)와 (나)는 하나의 지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지문을 ()³⁰⁾하며 독해해줘야 해요.
-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장의 '종합'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에서 읽었던 그 '종합'이 떠올라야 합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㉔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 종합의 ()³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³²⁾가지 정보가 나왔다는 사실을 체크해야겠죠? '문장'을 정확히 읽자는 겁니다. 놓치는 정보 없이!

종합의 조건³³⁾

- 1.
- 2.

- 여기서 '중화 상태'는 '수식된 정의'로 제시되어 있죠? 민감하게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종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네요. 이를 앞 문장의 설명과 엮어서 독해해봅시다.

종합은

1.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 종합의 조건 (1 / 2)³⁴⁾
2.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종합의 조건 (1 / 2)³⁵⁾
3. 이를 통해 최상의 범주 = ()³⁶⁾ 생성

- 어쨌든, 여기까지 읽고 딱 다음 내용만 머릿속에 남으면 됩니다. '종합'이 제일 좋은 거고, 진정한 종합이 이루어지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

30) 연계
 31) 조건
 32) 2
 33) 1. 일방적 승리 X / 2. 고유한 본질적 규정의 소멸 X = 중화 X
 34) 2 | '본질적 규정'이 살아 있어야 하니까
 35) 1 |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36) 종합

2문단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 변증법의 탁월성이 '이것'이라고 하네요. '지시어' 살려야겠죠? 앞 문단이란 엮어가면서요. '이것'은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겠네요.

- 이런 '탁월성'을 갖고 있으니, 헤겔은 '변증법'에 최적화된 학문을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변증법은 좋은 거니까, 변증법에 맞춘 학문은 아주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 이 두 문장을 읽고 여러분은 바로 ()³⁷⁾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나)의 글쓴이가 '헤겔'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판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글쓴이의 비판 : 헤겔의 '미학'은 '변증법'에 맞춘다는 철학적 기획을 완수하지 못했다.

- 즉, '변증법'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헤겔이 생각하는 '미학'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바로 (가)에서 '미학'이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³⁸⁾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 '형식'이 '직표사'이고, '절대정신의 형태'가 '예종철'인 것은 각각 하나씩 대응해주면 되겠죠? 그냥 재진술이니까요.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성이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외관상'으로요. 즉, 실제 ()³⁹⁾을 살펴보면, 이들이 전혀 '변증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 글쓴이가 헤겔을 ()⁴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장의 뉘앙스 자체가 안 좋게 읽혀야 정상입니다.

37) 비판
 38) (가)에서 '미학'은 제일 하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철학'이 짱이었고, '미학'은 '짱'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나거나, 돌아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39) 내면 |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40) 비판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 무려 문장이 6줄입니다. 엄청 길어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41)
- 우선 이 문장에서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앞 문장과 엮어보세요. 앞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적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 문장을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기

1. <그러나 ~ 있음이,>
2. <예술로부터 ~ 드러날 뿐,>
3.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 문장을 제대로 독해한 학생이라면,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1번은 <직관 → 사유>를 얘기하고, 2번은 <예술 → 철학>을 얘기하는데, '직관 = 예술'이고 '사유 = 철학'이니까요.
- 이 과정에서 '예술'에 해당하는 특성이 사라지고, '철학'에 해당하는 특성이 강해진다는 사실이 인지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3번을 읽고 나면 ()42)라는 개념이 떠오르며, '아~ 이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죠.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 '직관 = 외면성 = 예술 = 객관성 = 감각적 지각성'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핵심 요소가 '헤겔'이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 = ()43)'된다고 합니다.
- 결국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미학'에서의 '변증법'은 '외관상'으로만 변증법적 체계를 갖고, 실제로 그 '내용'은 하나도 변증법적이지 않은 것이죠.
- 글쓴이는 완벽하게 헤겔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41)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 나아가 너무 어려우면 '주어'와 '서술어' 체크하기.
 42) 중화
 43) 중화

3문단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 헤겔이 생각한 대로 변증법대로 '예술'을 해석하려면, '철학 =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 = ()44)'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45)을 가장 높은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 '예술'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보조사의 의미 살리세요.) 설명된다는 것은, '철학'보다 '예술'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말과 같은 거죠?
- 즉, 철학 이후에 '재객관화 = 예술'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이런 사실은 '헤겔'이 제일 잘 알고 있대요. 그런데 대체 왜 너는 '예술'을 제일 하급하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 여기서 방법은 ()46)과 같은 말이고, '철학 체계'는 헤겔이 생각하는 '예술, 종교, 철학' 간의 관계겠죠? '방법'과 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거니까요.

독해 포인트 정리

1. 어려운 지문이지만, (가)는 '예술'을 하등하게, '철학'을 짱으로 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가 그것을 비판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2. '예술 · 종교 · 철학'의 수많은 '재진술'들을, '어휘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해하며 재진술했다면 지문 이해가 수월했을 겁니다.

44) 예술
 45) 예술
 46) 변증법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단순한 내용 일치 문제죠? (가)의 주장에 대한 (나)의 비판이라는 거 시적인 독해가 잡혔다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특정한 철학적 방법 = ()47)’이고, (가)와 (나)가 생각하는 ‘예술’의 상대적 위상이 다르죠? 정답이네요.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죠?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구요.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는 (가)나 (나)나 모두 지적하고 있지 않죠? 혁신적 방법같은 거도 없구요. 다 틀렸습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파생된 미학 이론도 없고, 범주적 유형화도 당연히..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변증법의 ‘통시적’ 변화 과정도 없고, 철학사의 단계적 설명도 마찬가지로...

□ 참고로 ‘통시’는 ‘시간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시’인데, <2021학년도 06월 모의평가 - 과거제>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 선지로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공시’를 몰라서 틀렸던 경우가 꽤 있어요. ‘통시’는 ‘시간순’이고, ‘공시’는 ‘하나의 시대 내’입니다. 말 그대로 ‘통/시’이고, ‘공/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7) 변증법

7.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인식 내용 = ()48)>은 동일하죠? 그런데 ‘형식’에 있어서 ‘직관·표상·사유’로 차이 있고 구요.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쉽게 풀었을 거지만, 이해 못 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 근데, 이해를 못했다면 ‘선지가 묻는 것’을 바탕으로 ‘지문’을 정확히 돌아가면 된다. ‘동일성’과 ‘상이성’이라는 말을 보고, (가로 돌아가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눈 굴리기라도 풀렸을 거예요.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근원적 질서 = 절대적 진리 = 이념>이죠? 이것과 ‘현실’이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1문단으로 돌아가서 ‘근원적 질서’ or ‘이념’과 관련된 정보를 눈으로 훑어서 풀어도 됩니다.

□ 하지만 글을 잘 읽은 학생은, ‘이념’이 ‘그 자체’^①로도, ‘현실에 존재하는 방식’^②도 모두^{①과 ②는 이분법적이죠?} 즉, ‘이념’은 완벽하게 ‘변증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쉽게 풀었을 겁니다.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정답선지이지만,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선지가 잘 안 풀릴 때는 뭘 하면 될까요?⁴⁹⁾

선지가 묻는 것 : ‘절대정신의 형태’는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냐?

1. 절대정신의 정의를 살펴보자. → 절대정신의 형태는 ‘예종철’이고,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구나.

2. ‘형식’은 ‘형태’ 간의 차이점일 뿐이구나.

3. ‘형식’이 ‘인식’하는 게 ‘형태’가 아니라, ‘형태’가 ‘인식’하는 게 ‘이념’인 거구나! 그냥 전체적으로 틀린 선지네.

□ 위와 같이 풀리면 됩니다.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가)의 1문단 마지막에서 ①과 ②로 재진술했던 거였죠? 어렵지 않습니다.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중요한 선지입니다. 왜?? ‘헤겔’이 생각하는 ‘절대정신’ 중 ‘짱’이 ‘철학’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헤겔의 주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선지이니깐 중요한 겁니다.



48) 절대적 진리 = 이념
49) 선지가 묻는 것 체크.

8.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직관, 표상, 사유의 ()⁵⁰⁾를 먼저 체크하고 봐야 합니다. ‘직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표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상’이고, ‘사유’는 ‘개념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풀어주세요.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보는 거’니까 ‘직관’이고, ‘상기’하는 거는 떠올리는 거니까 ‘표상’이겠네요.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상상’하고 ‘떠올려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상’이니까 ‘표상’이네요.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보는 것’이니까 ‘직관’이고, ‘개념을 분석’하는 거니까 ‘사유’네요.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개념 설정’이니까 ‘사유’이고, ‘창작을 기획’하는 건... 적어도 ‘직관’은 아니지!!! 하고 풀려야 합니다.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개념에 따라 규정’하니까 ‘사유’이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사유’네. 적절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봅시다. ‘사유’가 들어간 선지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⁵¹⁾이라는 워딩이 반복됩니다. 왜?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기 싫으니까요. ‘직관’과 ‘심상’은 ‘눈에 보인다 / 안 보인다’는 확실한 기준이 있지만, ‘사유’와 같은 경우는 ‘대체 뭐가 사유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 그래서 ‘사유’의 정의에 등장하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50) 정의
51) 개념

9.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정립-반정립-종합

㉡ 예술-종교-철학

□ ‘발문’을 정확히 잘 읽어야 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이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헤겔의 이론’을 분석했다는 것은, ‘비판’ 지점을 잘 체크하라는 겁니다.

□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은 ‘변증법’ 그 자체니까 갈 게 없는데, ㉡은 헤겔이 ‘예술’을 ‘하등’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 갈 겁니다. 이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선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정립과 반정립은 대립하죠? 예술과 종교도 마찬가지로요. 사실상 재진술이니까요!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세 번째가 ‘종합’의 위치니까 수준상으로 더 높겠죠?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은 ‘첫 번째 범주 = 정립’의 특성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헤겔’이 보나, (나)의 글쓴이가 보나 ㉡에서의 ‘첫 번째 범주 = 예술’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헤겔 : 예술은 그냥 낮은 등급임.

(나)의 글쓴이 :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

□ 지문을 다 독해했을 때,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차이점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나)의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은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술’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고, ‘철학’쪽이 ‘일방적 승리’를 가져가니까요! 그러니까 ㉠은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은 아닙니다.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은 종합이 안 되고, ㉠은 종합이 되죠? ‘수렴적 상향성’이 곧 ‘종합’이니까 적절하네요.

10.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헤겔의 말을 정리해봅시다.
- 1. '완숙'기가 되어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52) → 예술미로 승화' 즉, '철학'이 완성되어야 '예술'이 완성됨.
- 2. 지적으로 미성숙해서(=)53) 미적(=)54)으로 세련되지 못함.
- (나)의 글쓴이가 할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의 주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술'이 짱짱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에 들어갈 말은.. 스스로 먼저 정리해봅시다 ㅎㅎ55)

□ 우선 쉽게 풀어보면, 예술을 '짱'으로 보는 선지와 '짱'으로 보는 선지 중, '짱'으로 보는 선지를 골라내면 됩니다. 즉, (나)의 글쓴이의 주장을 골라야 합니다.

① 세 번째 단계가 중화한다 → (나)의 글쓴이의 주장과는 맞.

② 예술이 '내면성 =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 짱! → O

③ 예술이 '정립'에 있다는 거니까, '예술'을 철학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죠?

④ 예술이 '주관성'? 철학이라는 거니까 예술 짱! → O

⑤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못 한다는 거니까 예술이 안 좋다는 거네. X!

□ 이제 ②번과 ④번이 남았죠? 이제 '디테일'하게 선지를 따져보면, ④번 선지는 '객관성이 사라졌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②번이네요.

□ 답은 ②!!

52) 철학
 53) 철학 X
 54) 예술
 55) 철학 이후가 예술이라는 말이겠죠? 헤겔이 <보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철학이 뛰어나야 '예술'도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결국, '예술'이 '철학'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즉, (나)의 글쓴이의 주장을 선지에서 찾으려면 그게 답입니다.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나)의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죠? 헤겔의 말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철학 = 종합'이 범주들을 중화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틀린 선지네요.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예술'이 '내면성을 바탕으로 (=)56)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이라는 말이니깐, 우리가 찾던 말과 같죠? 답!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론에서와 현실에서와 모두 '정립'에 위치하죠? '정립-반정립-종합'이고, '예술-종교-철학'이니까요.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예술'이 '주관성 = ()57)'이라는 것은 (나)의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술이 높은 위치에 위치한다는 거니까요. 다만, '객관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객관성'은 '예술'의 본질이니까요. '주관성'이 강화되었다!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진리의 인식'은 곧, 이념의 인식이죠? <보기>에서의 말에 따르면, '예술'의 지위가 높은 거니까, 현실에서도 진리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1.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56) 철학
 57) 철학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리트

오늘날 우리는 온갖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리고 이 경우 대상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논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예술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하고 타 영역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예술론의 하나가 바로 체계 이론 미학이다. 루만에 의해 개척된 체계 이론은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체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미학에 적용하여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하려는 이들은 헤겔의 미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곤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끌어들이는 헤겔의 예술론이 본래는 오히려 예술에 대한 부정적 결론, 즉 '예술의 종언' 명제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명제가 어떻게 예술 옹호론을 위한 실마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헤겔 미학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예술을 '이념의 감성적 현현(顯現)', 즉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로 규정한다. 그는 지고의 가치인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을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는 예술이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광기의 산물이어서 정신의 최고 목표인 진리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플라톤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일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헤겔의 최종적인 미학적 결론은 오히려 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우리에게 예술은 더 이상 진리가 실존하는 최고의 방식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예술이 더 융성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가 된다. 다분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예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헤겔이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각각 설정한 '진리'와 '감성'의 상관관계에 있다. 객관적 관념론자인 그는 진리란 '우주의 근본 구조로서의 순수하고 완전한 논리', 즉 '이념'이므로, 그것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은 바로 그 순수 논리에 대응하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감성을 형식으로 하는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감성적이어서 아직 이성적 사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먼 과거의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되며,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가 근대에는 철학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헤겔은 이러한 발전의 방향이 영원히 불가역적이라고 여긴다.

체계 이론가들은 바로 헤겔의 결론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예술의 진리 매개 가능성'에서 역전을 위한 힌트를 얻는다. 즉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은 예술의 진정한 실존 근거를 찾거니와, 예술을 진리 영역으로부터 '퇴출'시킨 헤겔의 전략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오래도록 그것을 짓눌러 왔던 중책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때문에 근대 이후에 존속하는 예술은 헤겔에

게는 '무의미한 잔여물'인 반면, 이들에게는 '비로소 예술이 된 예술'이다. 모든 외적 연관들이 차단됨으로써, 즉 일체의 예술 외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자족적 체계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예술에게 주어지며, 이에 따라 예술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많은 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체계 이론의 이러한 예술 해방 전략에는 석연찮은 점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와 예술의 긍정적 연관을 매력 있게 정당화하는 담론을 미학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 체계 이론 미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원인은 체계 이론 미학이 헤겔 미학을 전거로 삼으면서 그 원래의 핵심 주제를 방기(放棄)한 데 있다. 따라서 예술계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예술론이 되려면 체계 이론 미학은 진리와 연관된 예술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이 진리 매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 단계를 넘어선 시대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 ② 예술의 본질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이지만, 진리 매개라는 이질적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된다.
- ③ 예술이 진리 매개를 그것의 유일한 과제로 삼음으로써 주제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 ④ 예술이 진리 매개를 추구하여 매우 난해한 행위로 변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 ⑤ 예술이 진리 매개를 지나치게 지향함으로써 양식적 쇠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8. ㉡가 ㉢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전적인 학설을 활용했지만, 그것의 핵심적 논점에서 벗어났다.
- ②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했지만, 그것의 현실적 실용화는 미흡했다.
- ③ 유의미한 주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의 대중적 공론화가 어려웠다.
- ④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지만, 그것의 인과적 규명에는 실패했다.
- ⑤ 매력적인 가설을 수립했지만, 그것의 경험적 검증에는 실패했다.

9. <보기>의 주장에 대한 '헤겔'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근대에 새로이 출현한 장르인 오페라는 기존의 모든 예술적 요소를 하나의 장르로 통합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완전성을 갖춘 종합 예술이다. 오페라의 이러한 통합성은 그 근본 원리 면에서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영화와 뮤지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① 오페라의 양식적 장대함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현대적 재현이다.
- ② 오페라가 절대적 진리를 담으려면 종합적 기법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
- ③ 오페라의 완성도 높은 양식이 예술의 본래적 가치의 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④ 오페라의 통합적 성격은 오히려 예술에 더 이상의 양식적 발전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 ⑤ 오페라가 가치 있는 장르가 되려면 앞으로 화려한 양식 속에 이성적 사유를 담아내야 한다.

MEMO

1문단

오늘날 우리는 온갖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리고 이 경우 대상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논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예술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하고 타 영역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 '예술'은 '예술'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예술'로 취급할 때는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한다는 정도로 정보가 정리되면 되겠다.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예술론의 하나가 바로 체계 이론 미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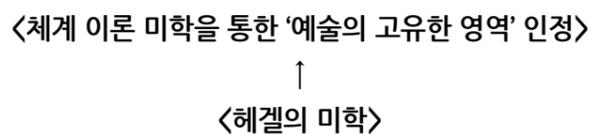
-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인식'을 보면 해야 할 건? 지시어의 본체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인식 = ()'58)으로 재진술하자.
-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 지문이 체계 이론 미학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화제'를 잡는 것이다.

루만에 의해 개척된 체계 이론은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체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미학에 적용하여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하려는 이들은 헤겔의 미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곤 한다.

- '루만'이라는 사람이 '체계 이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주장은 곧 '정의'이므로 제대로 체크하자.
- 루만이 주장한 '체계 이론'을 읽어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바로 재진술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함 = ()59)

- 이 이론을 '미학'에 적용하니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다. '체계 이론'을 '미학'에 적용할 때 '헤겔의 미학'을 근거로 삼겠다고 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된다.



- 우리는 이제 '헤겔의 미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체계 이론 미학'을 통한 예술의 고유한 영역 정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 항상 목표를 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헤겔 미학'을 이해할 거다.

58) 예술의 고유한 영역 인정
59) 예술의 고유한 영역 인정

2문단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끌어들이는 헤겔의 예술론이 본래는 오히려 예술에 대한 부정적 결론, 즉 '예술의 종언' 명제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 여기서 말하는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결론'은 뭘까?60) 앞 문단과 엮어서 재진술이 가능해야 하겠다. 항상 하는 거다!
- 문제는 '호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헤겔의 예술론'을 가져왔는데, 이게 오히려 '예술의 종언'이 된다고 한다. 즉, 예술을 끝내버린다는 것이다.
- '헤겔의 미학'이 어떻게 '예술'을 '종언'으로 이끄는지 살펴보자.

따라서 이 명제가 어떻게 예술 옹호론을 위한 실마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제'가 뭘까?61) 모르겠으면 앞 문장을 보자.
- 분명히 1문단에서 '이 명제'를 '예술 옹호론'에 쓸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앞 문장에서 오히려 '예술의 종언'이 된다고 한다. 둘은 분명히 모순인데, 어떻게 '이 명제'가 '옹호론'에 쓰일 수 있는지 이해해보자.
- 단어가 어렵다면 네이버에 검색해가며 이해하자. 어휘의 부족은 집중력을 하락시키고, 지문 이해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곧 점수의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 이해할 것은 <헤겔의 미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이론이 어떻게 '예술의 종언'이 아니라 '예술 옹호론'이 될 수 있는가? 이다.
- '헤겔의 미학'부터 이해해야 하겠다. 목표 의식을 갖고 독해하자.

60)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 / 고유한 영역 인정 등 | 맥락만 같으면 됩니다.
61) 예술의 종언 명제 = 헤겔의 예술론

3문단

헤겔 미학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예술을 '이념의 감성적 현현(顯現)', 즉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로 규정한다.

□ 헤겔 미학의 ()⁶²가 나온다. 진짜 개중요하다. 정확히 독해하자. 핵심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정리해보자.

헤겔 미학의 핵심

- 1. 예술 = 이념의 감성적 현현 =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
- 천천히 이해해보자. '즉'의 앞뒤는 같은 말이다. 따라서 '이념 = 절대적 진리'이고, '감성적 현현 = 구체적 형상화'이다. '현현'이 뭔지 모르면 네이버에서 찾아보자. 왜 '현현 = 구체적 형상화'로 재진술 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쨌든, 예술은 '절대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예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이니까.

그는 지고의 가치인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을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에 포함시킨다.

□ 앞 문장과 같은 말이다. 우선 여기서 '그'는 '헤겔'이다. 지시어 살리자. 그리고 '지고의 가치인 진리 = ()⁶³'이다. 이 정도 재진술은 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분명히 '예술'이 '진리'를 구체화시켰다고 했다. '예술'이 갖고 있는 '내용'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해가 안 간다면 천천히 다시 문장을 독해하고 또 독해하자. 앞 문장이랑 엮어서 재진술을 해보려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결론은 이거다. 예술이 진리를 표현하니까, 예술도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추론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 = ()⁶⁴

□ 위 각주의 답이 있어서! 예술이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각주의 답이 곧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인 것이다.

62) 정의
63) 절대적 진리
64) 진리

이는 예술이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광기의 산물 이어서 정신의 최고 목표인 진리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플라톤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일 수 있다.

□ 이 문장을 읽으면 우선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한다.

- 1. 플라톤의 주장
- 2. 헤겔의 논변이 플라톤의 주장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 우선 1번부터 정리하자. 플라톤은 '예술'이 '진리 매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매개'는 ()⁶⁵와 같은 말이다. '매개'가 가진 어휘의 의미를 바탕으로 천천히 생각해보자.

□ 어쨌든, 플라톤은 예술이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1번은 이해한 거 같다. 이제 2번을 이해해보자.

플라톤 : 예술은 진리를 매개할 수 없다.



헤겔 : 예술이 진리를 매개(구체화)할 수 있다.

□ 둘은 반대정보이므로 헤겔이 플라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수능은 문장 하나에 여러 의미, 여러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독해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함을 통해 행간의 여백을 채워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헤겔의 최종적인 미학적 결론은 오히려 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 '둘째'를 보고 당황하면 안 된다. 당황했다면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보자. 헤겔 미학의 핵심이 2가지라고 했다. 다시 정리해보자.

헤겔 미학의 핵심

- 1. 예술 = 이념의 감성적 현현 =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
- 2. 헤겔 미학의 결론 = 1번과 모순

□ 이제 우리는 '왜' 모순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납득해야 한다. '정보 처리'가 아니라 '정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예술은 더 이상 진리가 실존하는 최고의 방식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예술이 더 융성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 헤겔의 말이다. '예술 = 진리가 실존하는 최고의 방식 X' 즉, 예술이 진리를 제대로 ()⁶⁶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가 '실존'한다는 걸 재진술할 수 있어야 하겠다.

65) 진리의 구체화 | 맥락만 비슷하면 맞음
66) 구체화

□ 예술의 '형식' 즉, '진리'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예술의 '형식'이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 =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다.

□ 이 문단의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정신의 최고 목표 = 진리 매개'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없더라도 우리는 '정신의 최고 욕구'를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다.

□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래 박스에 답을 적은 후에 각주의 답을 보자.⁶⁷⁾

□ 한편, 배경지식 하나 정리하자. 기본적으로 '형식'과 '내용'이 이분법적으로 반대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기술에 너무 많이 나온 내용이다.

□ '내용'을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둘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외워두도록 하자. 어느 정도 배경지식은 독해에 필요하다.

4문단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가 된다.

□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주장'은 앞 문단의 ()⁶⁸⁾ 두 가지 이다. 스스로 정리해보자.⁶⁹⁾

- 1.
- 2.

□ 두 주장이 '모순'인데,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즉'과 함께 재진술이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자.

□ ㉠을 둘로 나눠보자.

1.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



2. 종말을 맞는다.

□ '헤겔 미학의 핵심'과 ㉠의 각 1, 2번을 연결지어서 독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 헤겔 미학의 핵심 1번은, '예술 = 진리의 구체화'이다. 즉, ㉠의 1번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헤겔 미학의 핵심 2번은 '예술 = 진리의 구체화 X'이다. 그러니까 예술이 '종말'을 맞는 것이다. 1번이 역할인데, 2번에 따르면 1번을 못하니까 '종말'을 맞는 거다.

□ '두 주장'이 인과관계라고 했으니,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인 ㉠을 '두 주장'으로 나눌 생각을 했어야 한다. '정보를 나눠서 정리하는 것'과 '정보를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한다.

다분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예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헤겔이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각각 설정한 '진리'와 '감성'의 상관관계에 있다.

□ 충분히 '역설적'이다. 1번과 2번이 '모순'적인데, '인과관계'를 형성하니 말이다.

□ 이러한 예술관 = ()⁷⁰⁾이다. 지시어는 살려 읽자.

□ 어쨌든 이걸 이해하려면, 아래를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예술의 내용 : 진리

예술의 형식 : 감성

목표 :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자.

67) 분명히 문장에서 '예술의 형식은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좀 단순화 해보면, '예술 = A가 아님'이다. 여기서 A가 뭐가 되어야 할까? 당연히 '진리의 구체화'이다. 헤겔 미학의 핵심 2번은 1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번 = 진리의 구체화이니, 2번 = 진리의 구체화 X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의 최고 욕구 = 진리의 구체화'로 아주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

68) 헤겔 미학의 핵심
69) 1. 예술 = 이념의 감성적 현현 =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 | 2. 헤겔 미학의 결론 = 진리의 구체화 X
70) 헤겔의 미학

객관적 관념론자인 그는 진리란 '우주의 근본 구조로서의 순수하고 완전한 논리', 즉 '이념'이므로, 그것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은 바로 그 순수 논리에 대응하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 '헤겔'은 '객관적 관념론자'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어쨌든, 헤겔은 '진리 = 완전한 논리 = 이념'이라고 한다. '이념'이라는 것이 '관념적'이라는 사실을 알면 '헤겔'이 왜 '관념론자'인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관념'이라는 어휘를 바탕으로 납득해야 한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항상 검색하고, 예문을 보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자.
- 어쨌든, '진리 = 이념'인데, 이것을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이 '순수한 이성적 사유'라고 한다.
-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진리를 '매개'하는 것은 '예술'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헤겔의 주장은 '진리 매개'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가 한다는 것이다. '이성적 사유 ≠ 예술'이다. 순수한 '논리'에 대응하는 것이 '이성적 사유'인데, '예술'은 '논리'나 이성적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 즉, 이제 '예술'은 더 이상 진리를 매개하지 못한다. 헤겔 미학의 핵심 2번이 나온 거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감성을 형식으로 하는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감성적이어서 아직 이성적 사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먼 과거의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되며,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가 근대에는 철학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헤겔은 이러한 발전의 방향이 영원히 불가역적이라고 여긴다.

- 예술의 형식은 '감성'이다. 따라서 예술이 '이념 = ()71)'를 '매개'하는 경우는 인간에게 '이성적 사유 능력'이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으면 이를 통해 진리를 매개하지, 굳이 '예술'로 할 필요가 없다.
-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 = ()72)'가 결국 '철학'으로 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철학'과 같은 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 = ()73)'이다. 왜? 기존에 예술이 하던 것을 위 각주의 답이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철학'이 한다고 했으니, '철학'과 '각주의 답'은 같은 말인 것이다.
- 이제 다시 '예술의 내용 : 진리'와 '예술의 형식 : 감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해보자. '진리'를 참되게 매개하는 '형식'은 '이성'이다. 다시, '진리 ≡ 이성'이다. 근데, 예술의 '형식'은 '감성'이다. '이성 ↔ 감성'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더 이상 '진리'를 '매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성과 감성은 반대니까.

□ 이제 다시 ㉠을 살펴보자.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71) 진리
 72) 진리 매개
 73) 이성적 사유 능력

5문단

체계 이론가들은 바로 헤겔의 결론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예술의 진리 매개 가능성'에서 역전을 위한 힌트를 얻는다.

- 갑자기 '체계 이론가'들이 나왔다. 당황하면 안 된다.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 '체계 이론가 = 헤겔 미학'을 통해 예술을 (옹호 / 비판)74)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헤겔 미학에 대한 설명을 왜 읽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잡았었다. 스스로 아래에 써보자. 우리는 왜 3, 4문단에 걸쳐 '헤겔 미학'을 이해하려 노력했을까?75)
- 우리는 '헤겔 미학'을 이해했다. 이제 '체계 이론가'들의 주장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들은 '예술이 더 이상 진리를 매개할 수 없다'는 것에서 '역전' 즉, '헤겔 미학'을 '예술 옹호'에 쓸 수 있게 하는 힌트를 얻는다고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살펴보자.

즉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은 예술의 진정한 실존 근거를 찾거니와, 예술을 진리 영역으로부터 '퇴출'시킨 헤겔의 전략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오래도록 그것을 짓눌러 왔던 중책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

- '즉'과 함께 앞 문장을 재진술하는데, 문장이 너무 길다. 의미 단위로 끊어서 천천히, 제대로 읽도록 하자.
- '예술의 종언 = 예술의 진정한 실존 근거'라고 한다.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이 더 이상 진리를 매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예술을 '옹호할 근거'를 찾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예술의 종언 = 진리 매개 X = 진리 영역으로부터의 퇴출'이다. 즉, 이제 예술은 '진리'와 아무 관련이 없게 되었다. 예술이 '진리'를 매개해야 한다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났으니 '해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어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천천히 확실하게 독해한다면 충분히 재진술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근대 이후에 존속하는 예술은 헤겔에게는 '무의미한 잔여물'인 반면, 이들에게는 '비로소 예술이 된 예술'이다.

- 헤겔에게 '근대 이후에 존속하는 예술 = 무의미한 잔여물'인 이유가 무엇일까?76)
- '이들'은 '체계 이론가'이다. 이들에게 예술은 '진리'라는 책임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이제야 '진짜 예술'이 된 거다.

74) 옹호
 75) 체계 이론가들은 '헤겔 미학'을 '예술 옹호'를 위해 사용했다. 2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해해보자고 한다. 즉, '헤겔 미학'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통한 '예술 옹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래서 3, 4문단에 걸쳐 헤겔 미학을 이해했던 것이다.
 76) 더 이상 예술이 진리를 매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헤겔이 생각했을 때 예술의 역할(1번)이 '진리 매개'였기 때문에, 진리 매개를 못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예술이 아닌 것이다.

모든 외적 연관들이 차단됨으로써, 즉 일체의 예술 외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자족적 체계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예술에게 주어지며, 이에 따라 예술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많은 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 문장이 길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이다. 하고 싶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 말’이 곧 ‘체계 이론 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 체계 이론 미학의 주장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자.⁷⁷⁾
- 각주의 해설을 봤으면 다시 문장을 읽어보자. 충분히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문단

그런데 체계 이론의 이러한 예술 해방 전략에는 석연찮은 점이 남아 있다.

- 아? 문제가 남아 있다. 뭐가 문제일까.

왜냐하면 ㉠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와 예술의 긍정적 연관을 매력 있게 정당화하는 담론을 미학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 ㉠들이 ‘체계 이론 미학’을 ‘비판’하는 거다. 주장이 반대면 ‘비판’이다. 어떤 점에서 비판하는지 살펴보자.
- ㉠은 ‘진리와 예술의 연관’을 원한다. 그런데, ‘체계 이론 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예술’만의 ‘자족적 체계’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 아쉬움을 느끼는 거다. ‘고유한 자립성’은 인정하지만,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 체계 이론 미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왜 ‘절반의 성공’일까?⁷⁸⁾

이렇게 평가되는 원인은 체계 이론 미학이 헤겔 미학을 전거로 삼으면서 그 원래의 핵심 주제를 방기(放棄)한 데 있다.

- 우선, 어휘가 어려우면 네이버를 갔다 오자.
-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나와있다. 천천히 정리해보자.
 1. 체계 이론 미학은 헤겔 미학을 전거로 삼음.
 2. 근데 헤겔 미학의 핵심 주제를 방기함.
- 여기서 말하는 ‘헤겔 미학의 핵심 주제 = 헤겔 미학의 핵심 (1 / 2)⁷⁹⁾’번이다.

따라서 예술계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예술론이 되려면 체계 이론 미학은 진리와 연관된 예술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 나머지 절반도 성공해야 한다는 거다. ‘예술계의 중요한 요구’를 재진술 해보자.⁸⁰⁾ 그럼 문장이 다 이해될 거다.
- 어려운 지문이다. 어휘도 어렵다. 그래도 제대로 천천히 다 분석했다면 얻어간 게 많을 것이다. ‘헤겔 미학’을 이해함으로써 ‘체계 이론 미학’을 이해한다는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끌고 왔다면 정말 잘했다. 이런 ‘거시 독해’에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미시 독해’까지 연습하는 것을 이 지문의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 주기적으로 복습하기를 추천하는 지문이다.

77) 자족적 체계 | 체계 이론 이론가들의 주장은 예술이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고유하다는 거다. 예술이 ‘진리’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자신만의 ‘자족적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곧 ‘체계 이론 이론’의 주장이다.

78) ‘고유한 자립성’ + ‘진리와의 연관’이 둘 다 성립되어야 하는데 ‘체계 이론 미학’을 따를 시에, ‘고유한 자립성’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79) 1
80) 진리와의 연관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가 된다.

-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했어야 합니다. 1번에 따르면 예술의 역할이 '진리' 매개인데, 2번에 따르면 그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다.

- ① 예술이 진리 매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 단계를 넘어선 시대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 단계를 넘어선 시대' = '정신이 이성적인 시대'이다. 이때는 '이성적 사유'가 '진리 매개'를 하므로, '감성'을 형식으로 갖는 예술은 진리 매개를 할 수 없다. 즉, '종말'을 맞는 거죠. 정답입니다.

- 엄청나게 '재진술'되어 있는 선지이다. 이런 선지를 통해서 최근 수능의 어려운 선지를 연습해야 한다. 잊지 말자. '선지는 지문의 재진술이다.'

- ② 예술의 본질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이지만, 진리 매개라는 이질적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된다.
- 예술의 본질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이 아니라, '진리 매개'입니다. ㉠의 내용은 '예술이 진리 매개를 못해서 종말을 맞는다.'인데, 선지의 내용은 '진리 매개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③ 예술이 진리 매개를 그것의 유일한 과제로 삼음으로써 주제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 역시 ②번 선지처럼 '진리 매개' 때문에 '예술의 종말'이 일어난다는 말로 볼 수 있네요. 틀렸습니다. '진리 매개를 못하게 되어서 종말이 일어난다'는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 ④ 예술이 진리 매개를 추구하여 매우 난해한 행위로 변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 마찬가지로 진리 매개를 종말의 원인으로 삼고 있네요. 틀렸습니다.

- ⑤ 예술이 진리 매개를 지나치게 지향함으로써 양식적 쇠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 마찬가지로입니다.

8. ㉡가 ㉢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왜냐하면 ㉡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와 예술의 긍정적 연관을 매력 있게 정당화하는 담론을 미학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 체계 이론 미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가 ㉢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봐야 한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던 이유는 '진리와의 연관'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나타내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다. 답을 정해놓고 독해해야 한다.

- ① 고전적인 학설을 활용했지만, 그것의 핵심적 논점에서 벗어났다.
- '고전적인 학설 = 헤겔 미학', '그것의 핵심적 논점 = 진리와의 연관' 이므로 적절한 선지다. 답!

- ②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했지만, 그것의 현실적 실용화는 미흡했다.
- 현실적 실용화 때문에 비판한 게 아니다.

- ③ 유의미한 주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의 대중적 공론화가 어려웠다.
- 마찬가지로 대중적 공론화가 안 되어서 비판한 게 아니다.

- ④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지만, 그것의 인과적 규명에는 실패했다.
- '현상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헤겔 미학'을 바탕으로 '진리 연관'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오히려 선지의 진술과 다르게 '인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매력적인 가설을 수립했지만, 그것의 경험적 검증에는 실패했다.
- '가설'이 아니라 '논리'를 펼친 거다. 전체적으로 개소리.

9. <보기>의 주장에 대한 '헤겔'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보 기> —

근대에 새로이 출현한 장르인 오페라는 기존의 모든 예술적 요소를 하나의 장르로 통합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완전성을 갖춘 종합 예술이다. 오페라의 이러한 통합성은 그 근본 원리 면에서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영화와 뮤지컬의 탄생을 예고한다.

□ <보기>의 주장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기>의 주장 : 오페라는 완전하다. → 다음 시대의 영화와 뮤지컬의 탄생을 예고한다.

□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 독해해야 한다. '근대에 등장', '고대 그리스'에 견줄만큼, '다음 시대'를 예고 등을 보아, '시대'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 시간적인 개념과 관련된 '지문'의 내용은 '예술이 진리를 매개할 수 있었던 때는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이었던 먼 옛날'이라는 정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페라도 진리 매개는 하지 못한다'는 답을 찾으려면 되겠다.

① 오페라의 양식적 장대함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현대적 재현이다.
 □ 우선, <보기>에 '양식적 장대함'도 나온적이 없을뿐더러, '오페라'는 '현대'가 아니라 '근대'이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재현'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틀린 말이다.

② 오페라가 절대적 진리를 담으려면 종합적 기법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
 □ 헤겔에 따르면, 현대의 예술이 '절대적 진리'를 담기 위해서는 '정신의 이성적 사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근데, '오페라'는 기존의 '예술'을 통합한 것이므로 '정신의 이성적 사유'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담을 수 없다.

③ 오페라의 완성도 높은 양식이 예술의 본래적 가치의 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오페라가 완벽하다고 해서, '예술의 본래적 가치의 구현 = 진리 매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④ 오페라의 통합적 성격은 오히려 예술에 더 이상의 양식적 발전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 예술의 양식적 발전은 '헤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진리 매개'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예술의 형식이 '감성'이라 '진리 매개'를 하지 못한다는 선지였으면 맞는 선지였겠다.

— ★ —

⑤ 오페라가 가치 있는 장르가 되려면 앞으로 화려한 양식 속에 이성적 사유를 담아내야 한다.

□ '가치 있는 장르' 즉, '진리 매개'를 할 수 있으려면, 오페라라는 예술의 형식(양식) 속에 '정신의 이성적 사유'를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지의 내용이 '헤겔'의 평가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헤겔은 '예술의 형식(=양식) = 감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거기엔 '이성적 사유'가 들어갈 수가 없다. 애초에 '헤겔'의 주장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선지인 거다.

□ '발문'을 정확히 읽고, '헤겔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틀렸다면, 낫았다면, 교훈을 얻어가자.

— ★ —

M E M O



1

1문단 본문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2

2문단 본문

뇌 과학의 발전과 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뇌 영상기술

3

3문단 본문

뇌 영상 자료의 법정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

4

4문단 본문

뇌 과학의 문제를 법의 문제와 분리하자는 입장

5

5문단 본문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서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뇌의 이상에 의한 정신 질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뇌의 이상 탓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뇌 과학이다. 뇌 과학 연구는 인간의 의도나 행동과 연관된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를 근거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 온 법의 입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의 뇌 과학은 인지 과학, 심리학, 철학 등의 영역과 연결되어 인간의 심리, 사고, 행위 등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시각, 청각 등의 기본적인 감각 경험은 물론, 특정한 행위나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 다양한 감정 등이 뇌의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뇌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뇌영상 기술의 힘이 크다. 컴퓨터 단층 촬영(CT)이나 자기 공명 영상(MRI) 등은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 등의 뇌영상 기술은 뇌의 활동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뇌 과학에서는 뇌 기능과 정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나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거짓말, 협동, 경쟁과 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 난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구조나 활동의 차이 등을 연구하고 있다.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PET나 fMRI와 같은 최신 뇌 영상 기술이 제공하는 뇌 영상 증거물이다. 뇌 영상은 주로 정신 이상으로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사상 책임의 필수 요건인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증거물로 제시되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뇌 영상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 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뇌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아 뇌 영상 자료의 법정 도입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fMRI의 기술 발전에 공로가 큰 로고테티스는 fMRI 기술로 생산된 뇌 영상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fMRI 영상 자료의 한계가 감춰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fMRI 영상에서 활성화된 영역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역이 특정한 인지 과정에 선택적으로 기능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법학자 중에서도 뇌 영상이 특정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이용됨으로써 형사상의 증거로 활용되는 데는 여러 한계를 들어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들은 뇌의 특정한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과 범죄 행위 사이의 엄격하고 세밀한 인과 관계를 결정적으로 증명해 낸 실험 결과가 아직 없다는 점, 뇌 영상은 범죄 시점 이후의 뇌 상태를 나타내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범의를 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뇌 과학의 문제와 법의 문제를 분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뇌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모스는 뇌 과학 연구들이 인간의 법적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법 체계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 영역에서 추궁하는 책임은 인간의 정신 상태보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설령 뇌에 손상이 있다고 해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 윤리학자인 가자니가 역시 법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과 같은 증거들을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자니가가 이와 같이 주장한 까닭은 그가 인간의 행동에 관한 뇌 과학적 설명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개인의 뇌 내지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 작용 속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뇌 영상이 법정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들이 뇌 영상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논쟁과 판단 속에서 과학적 결과물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뇌 영상을 포함한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률가들과 과학자들이 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뇌 영상이 학문적인 엄밀성이나 철학적인 당위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보다는 법적 증거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느냐이다. 뇌 영상 증거가 법정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보이며, 뇌 과학 지식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나 추측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에서의 뇌 영상의 의미와 증거 능력은 과학이 독립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쟁과 실행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범의: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비문학 키워드

번호	키워드	설명
1	CT (Computed Tomography)	<p>▷ CT란 Computed Tomography의 약자로, 여기서 Tomography는 단층 사진 촬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CT를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도 부른다. CT의 원리는 인체의 골, 내장, 혈관 등 그 종류에 따라 'X선 흡수율'이 서로 차이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인데, X선을 비춘 후, 흡수율의 차이를 이용해 컴퓨터로 면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CT는 뇌와 다양한 장기 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p> <p>▷ CT를 이용해 뇌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튜브 형태의 CT 촬영 기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X선을 방출된다. 이때 X선은 신체의 한 단면에 대해 360도를 회전하며 특정 단면에 대한 X선의 흡수도 차이를 이용해 단면의 구조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각 부위별 X선이 흡수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여, 이 영상을 재구성하면 뇌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p> <p>▷ CT의 경우 일반적인 X선 촬영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폭이 검사자의 암 발병률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아니나, 이는 CT의 단점으로 작용된다.</p>
2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 CT와 함께 뇌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촬영기법으로는 MRI가 존재한다.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피폭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CT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이다.</p> <p>▷ MRI는 신체의 사진을 찍기 위해 자기장이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공명현상이 무엇일까? 기초 어휘에 수록된 공명의 풀이를 읽고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모든 물체는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자기적 성질인 자성을 갖게 된다. 자성을 갖게 된 물질에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가하면 전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를 공명현상이라고 부른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소리굽쇠 실험에서는 진동수가 같은 소리굽쇠 두 개를 가까이 놓고 한쪽 소리굽쇠를 때린다. 이때 때리지 않은 다른 쪽 소리굽쇠도 울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리굽쇠의 공명현상이다.</p> <p>▷ 이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MRI의 원리를 이해해보자.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데, 평소 수소의 원자핵은 회전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장에 놓인다면 자기장 방향을 중심으로 세차운동을 하게된다. 세차운동이란 회전하고 있는 강체에 돌림힘이 작용할 때, 회전하는 물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의 원자핵에 자기장을 쏘다면 이와 공명하는 파동만 다시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방출하게 된 주파수를 모아 컴퓨터로 재구성하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MRI가 영상을 얻는 과정이다.</p>
3	fMRI (functional MRI)	<p>▷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은 전부 '뇌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촬영 기술이다. 지문에서는 뇌과학 연구를 위해 뇌의 활성을 연구하여 뇌의 활동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뇌 촬영 기술의 발달에 따라 뇌의 활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fMRI이다.</p> <p>▷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fMRI는 MRI에서 파생된 기술이다. 전자기장을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지만 둘의 차이는 '헤모글로빈'에서 나온다. 헤모글로빈이란 순환계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여 산소 교환에 기여하는 단백질인데, 이때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과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 헤모글로빈은 MRI를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서로 다른 신호가 관측된다. 이는 곧 산소가 풍부한 뇌의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활성화되어있는 뇌의 영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동을 하는지, 좌뇌를 쓰는지 우뇌를 쓰는지, 뇌의 어느 부분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가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p>
4	PET	▷ PET 기술에 대해서는 선별된 연계 지문을 통해 학습해보자.

필수 어휘

①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②	공명	특정 진동수(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여 진동계의 진폭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의 특정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라고 하며, 공명 진동수에서는 작은 힘의 작용에도 큰 진폭 및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며 이 때 물체의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라고 한다. 물체는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수 있으며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되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이때의 진동수는 공명 진동수가 된다.
③	범의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④	추궁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힘.
⑤	내지	앞 내용이거나 뒤 내용임을 선택적으로 나타낼 때 쓰여 두 어구를 이어 주는 말.
⑥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⑦	증거 능력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다양한 뇌 영상 기술 [연계지문]

▷ 수록 이유 ◁

이 지문은 CT, PET, MRI, fMRI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문이다. 이 지문에서는 문단별로 CT, PET, MRI, fMRI의 순으로 각 기술에 대한 원리와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EBS 지문에서 다뤘던 논의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해 주고 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통해 키워드에서도 다뤘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 배경지식을 가지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갈 때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자.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인간의 뇌 활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바로 뇌 영상 기술이다. 1970년대에 개발된 CT를 시초로 하여 PET, MRI, fMRI 등 다양한 뇌 영상 기술이 연달아 등장하였다.

CT(컴퓨터 단층 촬영)는 인체 내부 장기마다 X선을 투과하는 양이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 단면을 촬영하는 장치이다. CT는 X선 발생 장치가 설치된 도넛형의 기계가 돌아가면서 X-ray를 여러 번 찍은 후 그 영상들을 조합하여 컴퓨터상에 인체의 횡단면에 해당하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낸다. 15초 정도면 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진단을 위해 주로 활용한다.

또 X선을 통해 혈액 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뇌출 뇌출혈 등의 진단에는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다.

CT 이후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의 생화학적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PET(양전자 단층 촬영술)가 등장하였다. 방사성 포도당은 특수 카메라나 스캐너로 볼 수 있는 양전자를 방사하기 때문에 소량의 방사성 포도당을 환자의 몸에 주입한 후 뇌의 뉴런들이 포도당을 이용하는 상황을 PET로 찍는다. 이 기술은 우리 뇌가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뇌 활동이 활발한 곳은 붉은색으로, 별로 활발하지 않은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PET는 신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뇌종양, 뇌신경계 질환 등의 조기 진단에 활용되고,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방사성 포도당이 많이 모인 곳을 찾음으로써 암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도 쓰인다.

CT와 PET가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점과 달리 MRI(자기공명 영상 장치)는 고주파에 의해 몸속의 특정 원소인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을 구현하는 장치이다. MRI는 엄청난 자력을 이용하여 환자의 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전자파를 환자에게 발사한다. 작은 자석처럼 활동하는 몸의 원자들이 MRI 전자파에 부딪혀 자체의 파동을 생성하면 MRI는 그 파동을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를 사진으로 변환한다. 이 장치는 좁은 터널 속에 들어가야 하므로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해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뇌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에 효율적이다. MRI는 CT와 달리 횡단면, 종단면, 측면, 사면 등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술이므로 심장 박동기나 치아 보철물 등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인공 장치가 몸에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다.

기능성 MRI인 fMRI는 뇌가 활동이 많은 부위일수록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활용하여 뇌 혈류 속의 산소 수준을 반복 측정하여 뇌의 기능적 활성화 부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뇌 영상을 구현한다. 환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제시한 후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 활성화와 그렇지 않을 때의 뇌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행위나

의식과 연관된 뇌 부위를 찾아 이를 뇌 단면의 해부 구조를 나타내는 영상 위에 색채로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히 발전해 온 뇌 영상 기술은 인간에게 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그간 속수무책이었던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또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최근의 뇌 영상 기술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는 뇌 영상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확 인 문 제

①	뇌 영상 기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O X
②	뇌 영상 기술은 CT를 시초로 하여 여러 종류의 기술이 등장하였다.	O X
③	MRI는 CT와 PET와 달리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다.	O X
④	뇌 영상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O X
⑤	CT와 PET는 영상을 얻기 위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 한다.	O X
⑥	PET와 fMRI는 뇌의 활동 부위를 색채로 표시해준다.	O X
⑦	뇌 영상 기술은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X선이나 전자파 등을 사용한다.	O X
⑧	뇌 영상 기술은 인지과학이나 심리학 영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X
⑨	CT와 MRI는 뇌에 대한 2차원적 영상을 제공한다.	O X
⑩	CT보다 PET와 MRI가 뇌신경계 질환 진단에 효율적이다.	O X

MEMO



양전자 단층 촬영(PET)의 원리 [연계지문]

▷ 수록 이유 ◁

키워드 설명에서 다루지 못한 '양전자 단층 촬영(PET)'에 대해 읽어볼 수 있는 지문이다. EBS 지문을 통해 PET는 뇌의 활동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 지문에서는 PET가 사용하는 과학적 원리와 함께 촬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며, PET 영상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이를 통해 PET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때 대사량이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PE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T에 사용되는 방사성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검출응답선이라고 하며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마선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하지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인 동시계 수시간폭을 설정하고 동시계수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란계수라고 한다.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랜덤계수라고 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E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 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계수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 인 문 제

①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	O X
②	방사선추적자는 비정상 세포 내에 다량으로 흡수되어 축적된다.	O X
③	PET에서 동시검출응답선은 직선의 형태로 표현된다.	O X
④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ET 영상을 만든다.	O X
⑤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감마선 방출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 X
⑥	PET는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화 기술이다.	O X
⑦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이다.	O X
⑧	방사선 추적자는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O X

MEMO



O, X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2014년 경찰대 [다양한 뇌 영상 기술]" 확인문제 정답

01. O

▷ MRI의 경우 인공 장치가 몸에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으며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없다.

2. O

▷ 1970년대에 개발된 CT를 시초로 하여 PET, MRI, fMRI 등 다양한 뇌 영상 기술이 연달아 등장하였다는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3. X

▷ 반대이다. CT와 PET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며 MRI의 경우는 방사선이 사용되지 않은 장치이다.

4. O

▷ 급격히 발전해 온 뇌 영상 기술은 인간에게 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5. X

▷ PET의 경우 소량의 방사성 포도당을 환자의 몸에 주입하나 CT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는다.

6. O

▷ PET는 뇌 활동이 활발한 곳은 붉은색으로, 별로 활발하지 않은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며 fMRI는 뇌 활성과 그렇지 않을 때의 뇌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행위나 의식과 연관된 뇌 부위를 찾아 이를 뇌 단면의 해부 구조를 나타내는 영상 위에 색채로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

7. O

▷ 뇌 영상 기술은 뇌 질환 치료를 위해 CT에서 X선을 사용하며, MRI에서는 전자파를 사용한다.

8. O

▷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최근의 뇌 영상 기술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마지막 문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9. X

▷ MRI는 CT와 달리 횡단면, 종단면, 측면, 사면 등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 ()

10. O

▷ PET는 신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뇌종양, 뇌신경계 질환 등의 조기 진단에 활용되고, MRI는 해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뇌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에 효율적이다. 하지만 CT의 경우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PET와 MRI에 비해 뇌신경계 질환 진단에 비효율적이다.

"2021년 고1 11월 [양전자 단층 촬영(PET)의 원리]" 확인문제 정답

MEMO

01. ○

▶ 1문단에서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술된다.

02. ○

▶ 2문단에서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세포 내에 축적'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3. ○

▶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검출 응답선이라고 하며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4문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04. X

▶ 3문단에서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선추적자의 ~ 몸 밖으로 나온 ~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된다고 하였다. 즉 PET 스캐너는 몸 밖으로 방출된 감마선을 검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

▶ 4문단에서는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선지는 적절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06. ○

▶ 1문단에서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 영상화하는 기술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07. ○

▶ 4문단에서 'PET 스캐너는 수많은 ~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다.

08. X

▶ 2문단을 통해 방사성추적자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되고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메밀꽃 필 무렵

1

장면 01.

장을 거두는
허생원과 조선달.

여름 장이란 애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살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훤히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때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죽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뚝뚝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렀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 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 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 찼다. 명석 위에는 천 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빠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 장수도, 땀장수도, 옛 장수도, 생강 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워 육칠십 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뒤 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양갈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 놓고 계집의 고향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장면 01 | 줄거리

▶ 여름장은 더워서 사람도 없다. 어차피 다 못 팔 것 같아서 해가 다 지지 않았음에도 장을 거두는 허생원과 조선달이다. 다음 장을 가려면 육칠십리 길을 걸어야 한다. 밤새 길을 걸어야 하는 허생원과 조선달이다. 한편, 짐을 다 챙긴 후 장의 풍경은 싸움이 터지고, 욕지거리가 들리는 등 아주 어수선하다.

2

장면 02.

충죽집에 간
허생원과 조선달,
허생원과 동이와의 갈등

“생원, 시침을 떼두 다 아네……. 충죽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畫中之餅)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구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두 않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두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군 해두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죽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였나 부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궁리 말구 가 보세나그려. 내 한턱 썬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수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죽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뭇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죽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풀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쳐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반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 두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팽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껄었다 — 어디서 좃어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도 아버 어머니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풀 치워.

그러나 한 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인테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찝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나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 썰 것은 무어야. 원. 충죽집은 입술을 쭈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니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 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답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 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이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이가 혈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죽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장면 02 | 줄거리

- ▶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동이가 충죽집을 후렸다는 말을 듣는다. 허생원은 여자를 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에, 충죽집에 가자는 조선달의 권유가 탐탁치는 않지만, 조선달의 설득으로 충죽집에 간다.
- ▶ 동이가 술좌석에서 여자와 놀고 있는 것을 본 허생원은 대뜸 화를 낸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술마시면서 여자들과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다. 여자를 대하는 것이 서투른 자신에 비해, 아주 능숙한 동이가 싫은 것일 수도 있다.
- ▶ 동이도 화를 내긴 했지만 한 마디도 말대꾸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허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동이가 괜히 신경쓰인다.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동이가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허생원은 동이가 급하게 자신을 부르자 바로 뛰쳐나간다.

3

장면 03.

나귀를 못살게 구는
아이들과 허 생원의 갈등

“생원 당나귀가 바를 끊구 야단이에요.”

“각다귀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음질하려니 거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부락스런 녀석들이라 어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는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 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라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썹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굵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굵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 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 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도 썩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 뻘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체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 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줄행랑을 논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떨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흘리개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고 녀석 말투가…….”

“김 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원통 흠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우.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 생원은 모르는 곁에 낮이 뜨거워졌다. 못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려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새를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 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 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달음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장면 03 | 줄거리

- ▷ 아이들이 나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동이가 허 생원을 부른 것이었다. 나귀도 나귀이지만, 허 생원은 아까 같은 일이 있고도 자신의 나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알려주려 와 준 동이에게 감동을 받는다.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 허 생원은 나귀에 대한 애착이 깊다. 함께 장에서 장으로 반평생을 함께 다닌 ‘친구’인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만큼 정이 들 수밖에 없다. 나귀는 허 생원을 보고 반겨한다.
- ▷ 아이들의 장난이 심했는지 나귀의 흥분이 식지를 않는다. 아이들은 이미 도망쳤고, 남은 아이들은 허 생원의 호령을 듣고 나귀에게서 멀어진다.
- ▷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나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허 생원의 나귀는 ‘수컷’인데, ‘암컷’을 보고 자기 스스로 흥분했던 거다. 오해를 했던 허 생원은 낮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놀리는 아이들에게 화가 난다.
- ▷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허 생원은 채찍을 들고 아이들을 쫓아가지만, 아이들을 쫓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 결국 채찍을 내던진다.



조 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엮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드림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닳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끊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 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두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때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팡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이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연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귀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함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 장면 04 | 줄거리 ◀

- ▶ 허 생원, 조 선달, 동이는 다음 장으로 출발한다. 20년 간 장에서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던 허 생원이지만, '봉평'은 거의 빼놓지 않고 간다고 한다.
- ▶ 허 생원의 원래 고향은 '청주'이지만, 허 생원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고향은 '장과 장 사이의 길'이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 자체가 허 생원의 고향인 것이다. 장과 장을 돌아다니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 ▶ 허 생원의 젊은 시절의 회상이 등장한다. 알뜰하게 저축한 적도 있지만, 도박 등으로 탕진해 버렸던 허 생원이다. 그래도 나귀는 팔지 않는다. 여기서도 나귀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 그렇게 다시 장을 도는 삶으로 돌아 온다.
- ▶ 여기서 '꼭 한 번의 첫 일'에 대한 회상이 나온다. 조 선달은 몇 번이고 들어서 지겨워 한다. 그래도 잘 들어준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주변 풍경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가 묘사된다. 아름다운 달빛, 고요한 주위, 달빛에 젖은 곡식,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메밀꽃의 향, 아름다움. 세밀한 묘사로 주변 풍경의 분위기가 드러난다.
- ▶ 그렇게 허 생원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허 생원, 조 선달, 동이 순서로 일렬로 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허 생원의 이야기는 동이에게 들리지 않는다. 꼭 오늘같이 '메밀꽃 필 무렵'의 밤에, 더위로 잠들지 못한 허 생원은 밖으로 나온다. 개울가에서 목욕이나 하려고 나온 허 생원은 달빛이 너무 밝아 밖에 옷을 벗어놓기 그랬던지, 옷을 벗어놓으러 방앗간에 들어간다. 허 생원은 그곳에서 성 서방네 딸과 마주친다.
- ▶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 걱정에 울고 있던 성 서방네 딸의 이야기를 해주며 둘은 정을 쌓는다.
- ▶ 하지만 다음 번에 '봉평'에 갔을 때, 성 서방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 서방네 딸을 찾으려고 수소문도 하고, 제천 장판을 뒤졌지만 찾지 못한다. 허 생원은 봉평에서의 이 추억 때문에 매년 봉평에 들르는 거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잊을 수 없어서.
- ▶ 얘기를 들던 조 선달은, 자신은 가을까지만 하고 이런 생활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허 생원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 한다. '장돌이'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부분이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툇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총죽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맡게.”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버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 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똥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 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찢었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할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나썰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흘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견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펴으나 흘렀었다. 옷째 짙은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별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렸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듯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 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탄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등실등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 장면 05 | 줄거리 ◀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별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 ▶ 길이 좁아서 일렬로 가던 일행이, 길이 넓어지면서 다시 가로로 늘어선다. 그렇게 동이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 ▶ 동이의 가족사가 나온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없었고, 어머니만 있다. 어머니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안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없으니 ‘미혼’인 것이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에, 집안의 망신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이다.
- ▶ 고개가 나오고 힘들어서 그런지 얘기가 끊긴다. 고개를 넘어서는 바로 개울이 나온다. 장마에 끊긴 다리가 아직 보수되지 않아 옷을 벗고 개울을 건넌다. 개울을 건너며 계속해서 동이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 ▶ 어머니가 새롭게 만난 남자는 술주정뱅이이라, 술만 마시면 동이와 동이의 어머니를 때린다. 18살이 되어서는 참다 못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뛰쳐나온다.
- ▶ 물살이 세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들고, 이 때문에 조 선달과 두 명은 멀어지게 된다.
- ▶ 동이 어머니의 친정은 봉평이고, 아버 성은 모른다. 이야기를 들은 허 생원은 물에 빠진다. (소설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한 거다. 아버지가 혹시 자신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 ▶ 결국 물에 빠진 허 생원을 동이가 업고 나온다. 동이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고, 동이는 가을에 어머니를 봉평에 모셔오려 한다.
- ▶ 동이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 생원은 동이의 등허리의 따뜻함이 아주 좋다.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조 선달 · 동이와 함께 제천으로 갈 계획을 세운다.
- ▶ 주막으로 가는 길에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 주제 ◀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 해제 ◀

이 작품은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삶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특히 이 작품은 토속적인 어휘 구사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소설의 백미로 평가된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혈육의 관계를 조금씩 확인해 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동일한 시·공간적 배경을 매개로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 생원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총쫓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린다.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허 생원은 동업자인 조 선달과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들려준다. 이들과 일행이 되어 대화 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에게 낯의 일을 사과하던 허 생원이 동이의 집안 사정을 듣다가, 사생아를 낳고 쫓겨났다는 동이의 모친이 바로 성 서방네 처녀임을 짐작한다. 이에 허 생원은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혈육의 정을 느끼며 동이를 바라보던 허 생원은 동이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인 것도 확인한다.

▶ 확인문제 ◀

- Q1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O X
- Q2 토속적인 어휘를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O X
- Q3 주변 풍경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O X
- Q4 ‘허 생원’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귀’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O X
- Q5 허 생원, 조 선달, 동이의 자리 변화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O X
- Q6 등장 인물들의 내력과 신체적 특징을 통해 동이의 출생과 허 생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O X
- Q7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모두 죽을 때까지 ‘장돌이’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O X
- Q8 ‘총쫓집’에서의 일을 통해 허 생원과 동이의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O X

(가) 드림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끔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 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나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 끊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집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족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A]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

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 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 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0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 ① (가)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의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은 이후에 서술될 ‘인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다)의 ‘단 한 번’은 ‘오늘 밤도 또’와 대비되면서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라)의 ‘물방앗간’은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 ⑤ (마)의 인물 간 대화는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02. <보기>는 윗글을 읽고 '허 생원'에게 '봉평'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묶은 것은?

[보기]

- ㄱ. 허 생원은 줄곧 봉평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어. 심지어 고향인 청주에도 가 보지 않은 것 같아. 허 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인 셈이지.
- ㄴ. 허 생원은 달밤이면 언제나 봉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달밤의 분위기가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봉평은 허 생원을 현실 너머로 이어 주는 상상의 통로야.
- ㄷ. 허 생원은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리고 평생토록 가정도 꾸리지 못했어. 허 생원에게 봉평은 젊은 시절의 잘 못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이지.
- ㄹ. 허 생원은 봉평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어. 허 생원에게 봉평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 주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보기>에 따라 '이효석 문학제'를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한다.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기]

- [A]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것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 ① 역사와 전통 위에 지은 터전, 이효석 문학 마을로 오세요.
- ② 지친 현대인에게 소박한 농촌의 맛과 인심을 돌려드립니다.
- ③ 이효석, 그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④ 서도(西道)의 애수와 가락이 있는 제전, 당신의 의자를 비워 두었습니다.
- ⑤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향, 다시 못 갈 그 서러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04.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길'은 장돌뱅이로 유랑해 온 허 생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② ㉡의 '길가'는 허 생원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공간이다.
- ③ ㉢의 '밤길'은 장돌뱅이 생활을 하는 세 인물의 어려움과 암담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④ ㉣의 '길'은 동이가 대화에서 배제되어 허 생원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 ⑤ ㉤의 '길'은 허 생원의 과거와 현재가 길을 매개로 하여 미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MEMO



"메밀꽃 필 무렵" 연계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장돌뱅이인 허 생원은 봉평 장에서 동업자인 조 선달과 함께 일찍 장사를 마치고 주막으로 간다. 그곳에서 허 생원은 장돌뱅이 청년 동이가 충죽집과 수작을 하는 것을 보고 동이를 심하게 나무라며 쫓아낸다. 얼마 후, 쫓겨난 동이가 아이들의 장난으로 허 생원의 당나귀가 흥분했다는 것을 알려 주려 황급히 허 생원을 부르러 온다. 해가 기울자 대화 장까지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된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가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재밌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죽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 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행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 단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 겐들 걱정이 없으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 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꿀은 꿍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神通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늘그막 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 만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 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 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콩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

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러다. 충죽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쉽게 생각 말게.”

“처,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 인걸요.” / “돌아가셨나?” / “당초부터 없어요.” /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꺾꺾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중략)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훑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건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펍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 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잡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원 몸이라 장정 등 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 “그래, 모친은 아버지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별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듯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탄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동실동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물을 끓여 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 /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 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잡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 달

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가제: 갓.

*확적히: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해깝게: '가볍게'의 방언.

*훗훗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 듯한 훈훈한 기운이 있게.

*대궁: '대'의 방언. 꽃을 받치는 줄기.

*장도막: 한 장날로부터 다음 장날 사이의 동안을 세는 단위.

*피마: 다 자란 암말.

*아득시니: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MEMO

0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 생원은 오랜 장돌뱅이 생활을 나귀와 함께한 까닭에 나귀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 일시키고 있다.
- ②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우연한 인연을 평생 간직하는 인물로서 그녀와의 재회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
- ③ 조 선달은 허 생원의 동업자로서 자신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허 생원이 또다시 말해도 싫은 내색 없이 들으며 맞장구를 쳐 주고 있다.
- ④ 동이는 홀로 살아가는 모친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 ⑤ 동이는 왼손잡이라는 단서를 통해 허 생원과의 관계가 암시되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부에게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다.

0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행이 이동하는 시·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 동이가 허 생원이나 조 선달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 허 생원이 개울물에 빠질 만한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미리 암시하여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어 검연적은 상황을 모면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동이의 모친이 살고 있는 곳에 동이와 함께 가겠다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 연계지문

“생원, 시침을 때두 다 아네……. 충춧집 말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 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이지. 연소 패들을 적수로 하구야 대거리가 왜야 말이지.”
 “그렇지두 않을걸. 축들이 사죽을 못 쓰는 것두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군 해두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춧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뉘었나 부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궁리 말구 가 보세나그러. 내 한턱 썬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솟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춧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뭇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춧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뻥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걸짐에 따귀를 하나 갈겨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껍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 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꼈었다. — 어디서 좇어 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계도 아버지미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 야, 나가거라, 냉큼 풀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낫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 썰 것은 무어야, 원. 충춧집은 입술을 쭈긋 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 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문 죄 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 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해 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이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 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마나 지난 뒤인지 동이가 혈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춧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생원 당나귀가 바를 끊구 야단이에요.”

“각다귀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음질하려니 ㉢거슴츠레 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부락스런 녀석들이라 어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뽀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 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

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굵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굵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 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 한다.

(중략)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때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계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 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0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 생원’은 착실해 보이던 ‘동이’가 ‘충춧집’의 마음을 얻었다는 ‘조 선달’의 말에 ‘충춧집’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 ② ‘동이’는 ‘허 생원’이 ‘충춧집’에게 품고 있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허 생원’이 자신에게 화 내는 것을 이해한다.
- ③ ‘동이’는 자신을 나무라는 ‘허 생원’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자리를 뜬다.
- ④ ‘충춧집’은 자신에 대한 ‘허 생원’의 마음을 알게 되어 ‘허 생원’이 ‘동이’에게 한 행동에 대한 화풀이를 ‘조 선달’에게 한다.
- ⑤ ‘조 선달’은 ‘허 생원’이 ‘동이’에게 한 행동이 ‘동이’에게 미칠 영향을 말하며 ‘충춧집’의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

0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허 생원'에 대한 '조 선달'의 부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허 생원'과 '조 선달'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은 '나귀'를 괴롭히는 '각다귀'들에 대한 '허 생원'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은 '허 생원'과 '나귀'가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허 생원'이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고 있다.

0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메밀꽃 필 무렵은 허 생원, 조 선달, 동이 등 장돌뱅이들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情)을 묘사한 소설이다. 시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표현, 인간의 본능적인 애욕 등을 바탕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부성애 등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배경 묘사와 문체가 조화를 이루어 자아내는 낭만적인 분위기, 토속적인 어휘 구사와 서정적이고도 환상적인 묘사는 이 소설이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백미(白眉)로 평가받는 요인이다.

- ① '충춧집'을 두고 '허 생원'과 '동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인간의 본능적인 애욕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허 생원'이 충춧집에서 '동이'를 야단친 장면은 '동이'에 대한 육친의 정으로서의 부성애가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군.
- ③ '허 생원'과 '나귀'의 인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떠돌아다니는 존재로서의 장돌뱅이의 모습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군.
- ④ '나귀'를 묘사한 부분에서 비유법과 시각적인 표현 등의 감각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군.
- ⑤ '허 생원', '조 선달', '동이'가 함께 걷는 밤길을 묘사한 부분에서 서정적이고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MEMO



"메밀꽃 필 무렵" 정답 및 해설

"메밀꽃 필 무렵" 확인문제 정답

01.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X]

▶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소설에 '나'가 등장하지 않고, '허 생원'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2. 토속적인 어휘를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O]

▶ 인물들의 대화에는 '부락스런 녀석들', '놈팡이',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등의 '토속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다.

03. 주변 풍경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X]

▶ '메밀꽃 필 무렵'의 여름 밤을 묘사해놓은 아래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드러운 빛',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등을 통해 '구체적 묘사'가 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달빛이 내리는 메밀밭의 풍경을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계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04. '허 생원'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귀'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O]

아이들이 나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나귀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다. 허 생원과 '반평생'을 같이 지내오며,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는 나귀이다. 나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쫓아내고, 채찍을 들고 쫓아가는 모습과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는걸'이라는 허 생원의 말을 통해 허 생원의 나귀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05. 허 생원, 조 선달, 동이의 자리 변화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O]

▶ 처음에 '허 생원의 과거 회상'이 나올 때는 좁은 길 때문에

허 생원
조 선달
동이

순으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이후에 '동이의 과거 사연'이 나올 때는

허 생원 - 조 선달 - 동이

로 자리가 배치되며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개울을 건널 때는

조 선달 / 허 생원&동이

로 자리가 구성되며,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에 초점을 더한다.

06. 등장 인물들의 내력과 신체적 특징을 통해 동이의 출생과 허 생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O]

▶ '봉평'에서 있었던 허 생원의 사건과 '동이 어머니'의 출신, '동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동이의 아버지가 허 생원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허 생원과 동이가 모두 '왼손잡이'라는 신체적 특징은, 두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서사적 장치이다.

07.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모두 죽을 때까지 '장돌이'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X]

▶ '허 생원'은 '거꾸러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조 선달'은 이번 '가을'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자 한다. 이 일을 대하는 두 인물의 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08. '충죽집'에서의 일을 통해 허 생원과 동이의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O]

▶ 여자를 대하는 데 서툴지 않은 '동이'와, 그에 대비되는 '허 생원'의 모습을 통해 여자를 대하는 둘의 성격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메밀꽃 필 무렵" 연계지문 정답

01. ②

▶ 여자와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 나중에 서술되는 '성 서방네 딸'과의 인연을 부각시킨다.

[오답해설]

-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지 않는다. 거리를 두기 보단 오히려 허생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③ '단 한 번'과 '오늘 밤도 또'는 모두 '허생원'이 과거의 '괴이한 인연'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 ④ '물방앗간'은 '과거 상황'이 생기게 된 장소를 뜻하며, '현재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⑤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를 애정한다. 따라서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②

▶ '허생원'에게 '봉평'이 지니는 의미는 '잊지 못할 추억' 정도가 되겠다. 이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자.

- ㄱ. 허생원이 '봉평'을 소중하게 대함을 설명하는 선지이다. 적절하다.
- ㄴ.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은 곳이 맞다. 장돌이의 힘든 삶을 견디게 해주는 '추억'인 것이다.

[오답해설]

- ㄹ. 괴이한 사건이었을 뿐, '현실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ㄷ. '투전'으로 다 날리고, '가정'도 꾸리지 못한 것은 맞지만, '봉평'은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공간일 뿐, 잘못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이 아니다.

▶ 따라서 답은 ㄱ, ㄴ - ②번이다.

03. ③

▶ 현재로 따지면 '작문'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지금은 문학에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되지 않는다.

- 01. [A]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표현되어 있는지.
- 02. 비유가 사용되어 있는지.

▶ 두 가지 판단 기준 중, 2번을 우선으로 판단해보자.
▶ 서정과 낭만으로 집을 빗었다는 것은 '서정과 낭만'을 '집을 짓는 재료'로 비유한 것이므로 맞다. 나약, '서정과 낭만'이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드러나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해설]

- ①, ②, ⑤ 비유가 없다.
- ④ '의자'를 비워 두었다는 것은 '당신'이 갈 곳을 '의자'로 비유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작품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③

▶ '밤길'은 '대화까지 가는 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어려움과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해설]

- ① 고향이 '청주'이지만 가지 않는다는 점과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을 '고향'이라 하는 것에서, 장돌뱅이로 유랑해 온 허생원의 삶의 여정을 알 수 있다.
- ② '길가에서 허생원은 '울면서' 나귀를 어루만졌다. 장돌이를 하는 자신의 삶과 '동일시'되는 나귀를 어루만지며 울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길'이 좁아 '허생원, 조 선달, 동이' 순서로 외줄로 늘어셔야 했다. 이 때문에 동이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옛 처녀'라는 '과거'와 지금 걷고 있는 '현재'가 '길'을 매개로 이어져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산다', '거꾸러질 때까지 걷겠다'의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⑤

▶ 조 선달은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허생원의 이야기, 즉 젊은 시절 달밤에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싫은 내색 없이 또 들어 주고 있다. 이는 오랜 동업자이자 친구인 허생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허생원이 그토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애뜻한 이야기를 통해 추억에 젖는 것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동이는 홀로 살아가는 모친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이를 물고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허생원과 대화 중에 동이의 생부에 대한 언급은 아버지에 관해 도무지 듣지를 못해 알지 못하며, 모친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외에 생부를 원망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6. ④

▶ 허생원이 밭을 밟다 개울물에 빠진 것은 동이의 모친에 관한 이야기를 동이로부터 들으면서 그의 모친이 성 서방네 처녀 일 수도 있으며, 동이가 자신의 자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생원은 그런 실수를 다른 탓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따라서 ㉔은 동이가 자신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나귀 새끼 이야기로 겹연쩍은 상황을 모면한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은 아니다.

07. ⑤

▶ 총죽집은 동이를 야단치고 따귀를 때린 허 생원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낫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 썰 것은 무어야, 원.'이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쪼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다. 이에 조 선달은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즉 오히려 동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총죽집의 불만을 무마하려 하였다.('얼버무려 넘겼다.')

[오답해설]

- ① 조 선달의 말에 허 생원은 동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 뿐 총죽집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애송이', '착실한 녀석'은 모두 동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허 생원이 총죽집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려면, 허 생원과 총죽집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내용이나 총죽집이 허 생원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있어야 한다.
- ② 동이는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따귀를 때리는 허 생원에게 화를 내며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동이가 허 생원이 총죽집에게 품고 있던 마음을 안다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없으며, 허 생원의 행동을 이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동이가 자신을 나무라는 허 생원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소설 전체를 보면 동이가 자리를 뜨는 이유 중 하나로 부끄러움을 느낀 것도 포함될 수는 있다.
- ④ 총죽집은 허 생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허 생원과 조 선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표시한다. 총죽집이 자신에 대한 허 생원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없으며, 화풀이를 조 선달에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 선달은 허 생원의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는 총죽집을 달래려고 할 뿐, 총죽집의 화풀이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08. ④

▶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은 허 생원과 나귀가 오랜 시간을 함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로, ㉠의 윗부분을 보면 그 기간이 이십년 정도라고 되어 있다.

[오답해설]

- ① 작품에 나타난 조 선달과 허 생원의 관계로 보아 조 선달이 비죽이 웃는 것이 허 생원을 비웃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 선달이 '생원, 시침을 떼두 다 아네…….'라고 한 것을 보아 허 생원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한 장난스러운 웃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허 생원은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았으나 조 선달에게 이끌려 총죽집에 갔다. 마음이 당기지 않은 것은 허 생원이 총죽집을 마음에 두고 있으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동이가 총죽집과 가까워졌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 후에 허 생원과 동이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임을 암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후의 사건을 보면 허 생원과 조 선달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았다.
- ③ 허 생원이 거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고 한 것은 자기 인생의 동반자인 나귀에 대한 걱정과 애뜻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따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려 주러 온 동이의 마음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 문장을 볼 때 각다귀들에 대한 허 생원의 분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허 생원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여 조 선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나 '싫증을 낼 수도 없었다. 이는 허 생원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허 생원은 이러한 조 선달의 감정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침을 떼고'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 생원이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09. ②

▶ 허 생원이 총죽집에서 동이를 야단친 것은 부성에 때문이 아니라 총죽집에 대한 허 생원의 애정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해설]

- ① 총죽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와 '총죽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를 보면, 허 생원과 동이 사이의 갈등이 <보기>의 인간의 본능적인 애욕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허 생원과 나귀의 인연을 언급한 부분에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존재인 장돌뱅이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 닳아 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부분에 묘사가 드러난다. 비유법(직유법)과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 되어 있다.
- ⑤ 허 생원, 조 선달, 동이가 함께 걷는 밤길을 묘사한 대목은 제시된 지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의 구절이 묘사가 두드러지고 서정성이 강한 부분이다. 참고로, 이 소설이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백미(白眉)라고 평가받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MEMO